제1,2,3 RUTC 실현 :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는 남은 자(엡6:10-18) 8/25/2019

예수님은 마24장을 통해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셨다. 그 일들을 더 영적으로 예언해 놓은 곳이 계시록이다. 이해하기도, 설명하기도 어려운 성경처럼 보이는 곳이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하다. 결국 마지막 때의 일들은 창1:2, 창3:5에 등장한 사단이 어떻게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 악한 일을 할 것인지를 설명한 내용이다. 결론은 하나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해놓은 성도들(남은 자, 남는 자, 남을 자, 남길 자)은 반드시 승리하고, 주님과 함께 영광의 시간을 맞는다는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평생에 걸쳐 세가지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것이다. 마귀가 어떤 문제를 가져와도 속지 말고, 약속 붙잡고 믿음의 길을 가라는 것이다(11-12절). 키는 3오직을 누리는 것이다(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능력).

둘째는 하나님 결론이요, 우리의 결론인 전도의 여정을 가라는 것이다. 키는 뭘해도 하나님의 이유를 붙잡고 하라는 것이다. 세상을 살리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천명이다. 거기에 나를 쓰고자 하시는 하나님 계획이 소명이다. 내가 있는 현장(학업, 일)에서 하나님 계획을 붙잡는 것이 사명이다. “땅끝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뒤에야 끝이 오리라”가 결론이다. 이 전도자들이 누려야 할 축복은 따로 있다는 것이다(100년, 천년, 영원의 응답). 본문에 악한 영들과 싸우기 위해 전신갑주 입고, 마지막 할 일도 이것이다. 가서 담대히 복음 선포하라는 것이다(19절).

세 번째가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라는 것이다. 이 모든 것을 위해서 실제적인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오늘 나누어야 할 메시지이다. 힘이 있어야 믿음도 지키고, 힘(오력)이 있어야 사람을 살리는 전도도 한다.

24, 25, 영원의 축복을 붙잡고,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것이 기도의 여정을 걸어가는 키다.

1. 세가지 24시를 누려보라. 24시는 하나님이 오늘 내게 허락한 시간이다.

 세가지를 가지고 오늘을 최고로 누리고, 힘을 얻으라는 것이다. 그 힘으로 나를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것이다.

1) 복음 24다. 복음이 뭔가? 내 스스로 인생 근본 저주(원죄, 사단, 지옥) 해결할 수 없기에 그리스도가 오셨다.

① 아무리 착하게 살고, 열심히 살아도 이 그리스도 못 누리면 이해할 수 없는 영적 문제와 실패가 온다(요10:10)

 12가지 사단의 틀에 갇혀 힘든 인생 살게 된다. 자기도 모르게 늘 눌려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 있다(행10:38)

② “다 끝났다”(요19“30)는 믿음 가지고, 모든 것을 감사로 바꾸고,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기다리라(행1:8)

 죄, 저주, 운명, 지옥이 끝났는데, 감사할 것 밖에 더 있는가? 계속 감사로 사는 것이 기도다(빌4:6-7).

 모든 낙심, 불평, 원망, 두려움, 우울함, 전부 마귀의 속임수인 줄 알고, 생각만 바꾸어도 흑암이 떠난다.

③ 혹시 다시 문제가 오고, 넘어지면 새로 시작하면 된다.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했다(롬8:28)

 때로 문제가 오고, 실패가 오는 것은 겸손히 나를 낮추고, 갱신하고, 새로 시작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 누리는 것이다. 나를 구원하고, 치유하고, 축복해서 세상 살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다.

2) 기도 24이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한 말씀이 이것이다.

① 가장 무서운 기도 중에 기도가 24 기도이다. 모든 생각, 듣고 보는 것, 일어나는 일들을 기도로 바꾸는 것이다.

 생각이 기도가 되게 하라(엡3:20). 듣고 보는 것에서 기도제목을 찾아내라(마13:16). 평안과 힘을 얻을 것이다.

② 문제를 놓고, 중요한 일을 놓고 깊이 집중하며 기도하다보면 반드시 답을 주시고, 문을 열어주신다.

 기도의 힘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은 없다(요14:12-14).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다(렘33:1-3)

 사도행전에 나타난 모든 성령의 역사들은 전부 언약 붙잡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일어난 역사들이다(기도행전).

③ 우리가 기도할 때만 훼방하는 귀신의 영들도 무너진다(막9:29). 우리의 축복을 뺏고, 가로막는 자들이다.

 이 기도의 능력으로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밀 없으면 전도도 어렵고, 누구도 살릴 수 없다.

3) 전도 24시이다. 돌아 다니면서 전도하기 전에 나 중심에서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24 하라는 것이다.

① 하나님의 자녀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 아니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롬14:8)

 불신자도 진짜 엘리뜨들은 이런 중심 가지고 산다.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다는 것이다.

②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세상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원을 가지고 있기에 하나님은 다 주셔야 한다(오력)

 사업을 해도 사람 살리는 중심으로 하고, 전도 때문에 다 양보해보라. 먼저 나부터 살아나는 것을 볼 것이다.

 그리고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것에는 받을 축복이 따로 있다(막10:29-30).

2. 복음 중심, 기도 중심, 전도 중심의 24시는 반드시 하나님의 25시를 만들어낸다.

 세상에서 25시는 절망의 시간이지만 신자에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고, 절대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이다.

1)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절대 현장의 문이 열리는 것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문을 열어 주셔야 진짜 세계복음화 하는 것이다. 일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다.

 힘 없는 마가다락방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넘어 아시아, 유럽, 로마복음화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다

2) 그 현장에서 절대 제자와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절대 제자라는 말은 하나님이 감추어두었다가 만나게 하시는 제자다(롬16:25-27). 오직 복음외에 다른 동기가 없다. 오직 전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생명을 걸고 가는 사람들이다.

 내 평생에 이런 사람 한 사람만 만나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다. 그것이 사도행전의 역사이다.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실라, 바울과 루디아, 바울과 디모데, 바울과 로마서 16장에 등장하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들이다.
3) 이들이 팀이 되면 어떤 흑암 세력도 무너뜨릴 수 없는 절대 시스템이 되는 것이다(마16:18)

 그들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했다(마16:19)

 가족이 그런 팀이 되고(미션홈), 산업에 그런 팀들이 세워지고(전문교회), 교회가 그런 팀이 되면 세계 살린다.

3. 이 응답과 축복은 세상에서만 누릴 것이 아니다. 이것이 영원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이다.

1) 우리가 한 모든 기도를 천사가 금 대접에 담아 가지고 올라가 영원한 응답이 되게 할 것이라고 했다(계8:3)

2)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모든 수고는 그냥 축복의 차원이 아니다. 영원한 상급이 된다(빌4:1).

3) 특히 후대를 살리기 위해 한 모든 헌신은 하나님 앞에 영원한 기념비가 되는 것이다(수4:7).

 후대 사역, 렘넌트 사역은 단순한 미래 사역이 아니다. 나는 가도 하나님의 언약은 후대에게 계승되고, 하나님 의 역사는 계속 되어지게 하는 것이다. 마틴 루터의 비문에 “오늘 종말이 와도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기록된 말이 그 중심이 담긴 것이다. 실상 루터는 단순한 개혁자가 아니고, 후대교육에 모든 것을 건 사람이다.

결론-오늘 우리가 붙잡은 언약, 예배, 기도, 헌신, 전도와 선교가 24, 25, 영원의 축복이 되기를 축복한다.